

乾漆의 해독방법에 대한 문헌연구

이재호 · 김영삼 · 한규조 · 김명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Detoxification of *Lacca Sinica Exsiccata* Written in the Classical Writings

Jae Ho Lee, Young Sam Kim, Gyu Jo Han, Myoung D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First, I read all the materials, including Dongeuibogam(Encyclopedia Medica Koreana), classical writings on *Lacca sinica exsiccata*, herbal writings on lacquer poison, and herbal books on how to treat lacquer poison. And then after I examined all the details on qi and taste of *Lacca sinica exsiccata*, its efficacy, detoxification, lacquer poison, and its effects on body symptom, I got the following results. The order of frequency that *Lacca sinica exsiccata* is used in Dongeuibogam is pressure-feeling, blood circulation, and insect biting. Its way of intake is not so much through herb-boiling or powdered medicine as through hand-made pills. When medicine is used in the form of pills, the *Lacca sinica exsiccata* is more included among other ingredients. When old doctors treated pressure-feeling in the chest, they mixed up other herbs, with not putting more emphasis on the efficacy of lacquer. Old doctors believed that toxicity of *Lacca sinica exsiccata* is not having its own poison, but having biased dominance in the use of its qi and taste. The way of detoxification of *Lacca sinica exsiccata* is used in the order of crab-boiled water, egg, *Xanthoxylum piperitum*, *Perilla frutescens*, *Astar tataricus*, a weeping willow, iron-tempered water, and *Allium toberosum*. Special point in detoxifying lacquer poison is that they used medicines for well-circulating pulmonary stream, medicines for promoting to urinate or discharge by helping large colons to move, medicines for making the lacquer scar small, medicines for helping digest, and medicines for improving vessel function in the poisoned area. With the above results, the more profound study, based on the crab-boiled water and egg, is expected to go on to increase the effect on the one hand, and to make the new way of lessening or removing the toxicity of lacquer with more safe use on the other hand.

Key words : *Lacca sinica exsiccata*(乾漆), detoxification, lacquer poison, Dongeuibogam(東醫寶鑑)

서 론

옷나무과의 낙엽교목인 옷나무의 수간에 상처를 내서 흐르는 滲出物인 흑갈색 농조한 액체로 냄새가 나는 것을 生漆이라 하고 이것을 자연 건조한 것을 건칠이라고 한다.^{1,2)}

옷에 닭을 같이 넣어서 복용하는 방법을 '옷닭'이라고 하는데 옷닭은 위암을 포함한 복강 내의 종양성 질환과 여성들의 냉증, 생리불순, 남자들 경우 술에 의해 손상을 받은 간을 보호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강정제로도 효과가 있어서 민간에서 많이

복용하고 있다.³⁾

동의보감⁴⁾에서 옷은 성질이 따뜻하고 어혈을 풀어 주는데 독이 조금 있다고 하였다. 또 골수를 충족시켜 주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였고 蓄血證, 通血治法, 血結成癥, 九蟲, 陰腫, 陰痒, 陰癢, 陰冷, 交接出血 등 17개의 조문에서 건칠을 사용하였다. 건칠의 기미를 살펴보면 辛 溫 無毒^{3,5-7)}, 辛, 苦, 溫, 有毒^{1,4,8-14)}하고 귀경은 肝, 胃經^{9,11,12,15-18)}, 肝腎經¹²⁾, 肝, 脾의 2經^{2,10,14,19)}에入한다.

乾漆은 辛散苦泄하고, 溫通行滯하며, 性이 잘 下降하고, 비교적 강력한 破血祛瘀하는 효능과 攻堅하는 作用이 있어 능히 祛瘀通經하고, 消癥散結하여²⁰⁾ 여성의 무월경, 癥瘕¹⁴⁾, 閉經, 子宮內膜異位症, 血栓閉塞性脈管炎, 顱腦損傷²⁰⁾, 瘀滯閉經, 癥瘕, 瘀血腰痛, 風寒濕痺, 胞衣不下, 婦人臍下結物을 치료하며⁸⁾, 消積殺蟲 작용이 있어서²⁰⁾ 囊蟲病, 絲蟲病, 血吸虫病, 癌瘤¹⁸⁾, 勞瘵⁸⁾를

* 교신저자 : 김명동,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drmdkim@hanmail.net, · Tel : 033-730-0670

· 접수 : 2005/07/04 · 수정 : 2005/08/09 · 채택 : 2005/08/31

치료하고 해가 묶어 딱딱하게 굳은 積滯를 깎아내고, 날이 오래 지나면서 凝結된 瘀血을 제거하여 絶傷도 저절로 조화되며 근육은 자연히 이어지게 되고 腦髓도 저절로 충족되어지며 오래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음을 견딜 수 있게 한다.⁵⁾

생선은 劇毒하므로 매우 적게 사용하였는데⁷⁾, 生品은 營血을 傷하고 脾胃를 훼손하는 有毒物質이나, 炮製하여 炒炭한 후에는 毒性和 자극성이 저하되어 복용에 유리해진다.⁹⁾ 생것은 有毒하나 乾燥하면 毒이 減少되고, 炒하여 烟盡하면 無毒하다고 하여 철의 상태에 따라서 독성이 감소됨을 말하였다.⁸⁾

평소에 옷을 꺼리는 사람은 겉으로 옷기운을 받아도 살이 혈면서 붓고⁶⁾, 철을 보면 철창이 생겨 부스럼이 나고 가려움증, 발열, 구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⁸⁾, 철창은 초기에 소양이 발생하고²¹⁻²³⁾, 점차 頭面이 虛腫하고²²⁾, 굵으면 점차 마치 은진이 출현한 피부와 같아지고 온몸으로 두루 퍼지며²¹⁻²³⁾, 피부가 갈라지고 문드러지고 물이 흐르며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寒熱이 교대로 나타난다.²¹⁻²³⁾ 또한 옷을 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⁶⁾

어혈이 오랫동안 阻滯되어 일어나는 인체의 代謝不傳으로 인한 질병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약재임에도 불구하고 건철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김²⁴⁾과 송²⁵⁾의 옷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조²⁶⁾의 철창에 대한 임상 시험례가 있는 정도로 건철과 철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 있다.

이에 저자는 동의보감과 건철이 수록된 본초서적, 철창을 언급한 본초자료, 철창을 치료한 외과서적을 조사하여 건철의 기미, 효능, 해독방법, 그리고 철독에 의해 전신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밝혀, 건철의 독성과 부작용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를 증대할 방법을 찾고자 문헌 조사를 하였다.

본론 및 고찰

漆이 어떤 병증에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東醫寶鑑에 수록된 처방 가운데서 동의보감의 편재순서로漆이 들어간 처방을 골라 그 원분과 주치증, 철의 사용분량을 조사하였고, 본초서적에서 건철의 효능과 건철의 해독법을 조사하였으며, 철창을 치료한 외과서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피부가 약하고 체질이 민감한 사람이 옷에 닿으면 몸이 가렵고 살이 부르트고 통통 부어올라 고생하게 되는데 심하게 옷을 타는 사람은 옷 냄새를 맡거나 옷나무 근처에 가거나, 칠기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옷이 오른다고 한다.²⁷⁾

옷의 유독성분 때문에 피부가 헐고 가려워하는 증세를 가리켜 옷이 울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한 옷이 의외로 쓰이는 곳은 많아서 상 등 가구류에 칠을 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藥用으로 쓰여 왔고²⁸⁾, 머리 염색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²⁹⁾

옷나무를 닭에다 같이 넣어서 복용하는 방법을 바로 ‘옷닭’이라고 하는데³⁾, 민간에서는 닭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배합하여 여러가지 疾患의 치료에 응용하였는데, 닭에 (참)옷나무(껍질)를 넣어 黃疸, 胃潰瘍, 冷症, 帶下症, 婦人病, 알레르기 등을 치료했다.²⁸⁾

또 옷닭은 정력을 높이는 強精식품으로 평가받아 일부 사람이 이용해 오고 있는데, 신³⁾은 남자들 경우 술에 의해서 肝이 손상을 받을 때에 肝을 보호하고 肝의 解毒 작용을 돕는 데도 옷닭이 좋으며 남성들의 強精劑로도 이 옷닭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를 임상경험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옷닭을 만드는 방법으로 닭의 내장을 제거하고 배속에 새끼 손가락 크기의 옷나무 껍질을 100g 정도 넣어 삼계탕 끓이듯이 끓여 먹는 방법이 있고³⁾, 중닭 1마리, 옷나무 껍질 100g, 통마늘 15쪽, 굵은 파 1뿌리, 물을 준비하고, 닭은 내장을 잘 빼내어 물에 깨끗이 헹구고, 옷나무 껍질도 물에 한 번 헹구어 내장을 빼낸 닭의 배속에 옷나무 껍질과 통마늘을 집어넣고 아물린 다음 냄비에 넣은 뒤 닭이 잠기도록 물을 넉넉히 부어 오랫동안 푹 끓인다. 닭이 다 삶아지면 굵은 파를 어슷 썰어 넣고 조금 더 끓여서 만든다고 했다.²⁸⁾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렇듯 자주 사용하였던 옷을 韓醫學에서는 옷독의 피부자극이 염려되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옷에 대한 본초적인 올바른 지식과 옷이 울랐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옷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찾고자하여 우선 東醫寶鑑에 乾漆은 어떻게, 어느 질환에 쓰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血門에서 단방을 포함하여 5개, 蟲門에서 단방을 포함하여 4개, 前陰에서 1개, 後陰에서 1개, 火門의 骨蒸熱에서 1개, 內傷門의 嘈雜에서 1개, 積聚門의 疔塊證治, 積聚治法, 腸覃石痕血腫證治, 蟲積, 積聚癥瘕癰毒痺塊通治에서 8개, 雜病門의 脹滿에서 1개, 黃疸에서 1개 처방이 응용되어 총 23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내에서 乾漆은 積聚, 血, 蟲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된 23개 처방 가운데 血門의 蓄血症의 生地黃湯과 血結成癥과 蟲積의 增味四物湯의 3예에서 湯藥으로 복용하고, 蟲門의 蛔厥吐蟲의 蕪荑散과 火門의 骨蒸熱에 麥煎散의 2예에서 가루약으로 복용하고, 外用으로 前陰門과 後陰門에서 洗滌湯과 寸金錠子를 씻어내는 방법과 肛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예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16예에서는 丸藥으로 사용되어 乾漆은 주로 丸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方劑에 대한 견해로 君臣佐使論이 있는데 君藥은 방제증의 主藥을 말하며, 질병의 증상에 대한 주요 治療작용을 하는 약물을 말하기도하고, 처방 구성 약물중 약량이 최다인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臣藥은 君藥을 輔助하고 君藥의 부족한 약력을 더욱 협조하는 약을 말하며, 佐藥은 兼證 또는 副次的으로 중요한 증상을 치료하거나, 君臣藥의 약성이 너무 峻烈하거나 毒性이 있을 때 이를 제약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약물을 말하며, 使藥은 主病에 대한 약물이 병소에 이르도록 하는 작용과 각 방제구성약물에 대한 기미나 藥效, 또는 맛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을 말한다.³⁴⁾ 東醫寶鑑에서 사용된 乾漆의 용량은 3.75g에서 60g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湯藥에서는 다른 약물과 乾漆의 사용량의 비율이 4.5g대 3.75g, 13.6g대 11.3g, 18.8g대 3.75g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丸藥처방에는 君藥으로 1예, 다른 약물과 同君藥으로 4예, 臣藥으로 2예, 左使藥으로 4예로 사용되었다. 血門과 蟲門에서는 3예에서 君藥과 同君藥으로 사용되고, 積聚門에서는

1예에서 同君藥으로, 4예에서 佐使藥으로 사용되어 積聚를 치료할 목적으로 乾漆이 사용될 때는 다른 破積聚하는 약물과 함께 배오되어 건칠의 약성에 치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초서적에서의 乾漆의 氣味는 辛溫有毒^{4,10-11,16,19}, 辛溫無毒^{2,5,7}, 辛溫無毒有毒⁶, 辛苦溫有毒^{8,12,15,17,18,20}, 辛鹹溫無毒³⁰, 辛苦溫有毒^{8,12,15,17,18}, 辛苦鹹溫³¹하고, 歸經은 肝胃^{1,11,15-18,20}, 肝脾^{2,8,10,13,19}, 肝腎¹²으로 나타났다.

주치증은 破瘀^{4,10,11,13,16,18-20}, 消積^{4,13,18-20}, 殺蟲^{2,4,10,12-13,16,17}, 通經^{1,2,9,12,20}, 攻堅¹⁶, 填髓腦^{5,27}, 治絕傷, 續筋骨^{1,5-7,19}, 五緩六急, 風寒濕痺^{1,5,2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치증은 乾漆이 年深하도록 堅結된 積滯를 깎아 내리고, 日久하게 凝結된 瘀血을 깨부수는 작용^{5,32}이 있어서 치료 가능한 증상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乾漆의 주된 氣味는 辛溫하고, 주로 肝胃脾經에 歸經하며, 주치증을 요약하면 活血通經, 消積殺蟲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乾漆이 有毒하다는 기록은 24예, 無毒은 7예로 기록되었다. 有毒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고인들의 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毒性藥물을 총칭하여 毒藥이라고 하는데, 毒藥은 인체에 악리작용을 하여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독리작용이 있어서 독성손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독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고대의 독약의 개념은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張仲景이 말하기를 “약이라는 것은 草木蟲魚禽獸 등으로 능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이르고 모두 毒이다.”, “邪氣를 피하고 正氣를 안정시켜주는 것은 모두 이것을 이름하여 독약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당시에 일체의 韓藥을 지칭하여 毒藥이라고 하였고, 둘째로 毒藥은 즉 偏勝이 있는 한약이다. 예로 《藥性指歸》에서 “氣之毒者必熱, 味之毒者必辛”이라 하였고, 張景岳 또한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독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른바 독이라는 것은 氣味가 偏勝하기 때문이다. 대개 氣味가 偏勝한 것은 藥餌에 속하여 사람의 邪氣를 제거한다.”라고 하여 古代醫家は 性能이 偏勝한 약을 이르러 독약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毒藥은 곧 일정한 毒性이 있는 약이다. “治寒以熱藥, 治熱以寒藥, 飲食不消, 以吐下藥”이라 하고, “若有毒宜制, 可用相畏相殺者” “烏附毒藥, 非危病不用”이라고 하여 고인들은 독약을 일반독이 없는 한약과 구별을 하였다.³³ 그러므로 乾漆을 고대의 본초서적에서 有毒으로 논한 내용은 약물 자체가 가지는 독성이라기 보다는 기미의 편승을 독성으로 본 견해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乾漆은 辛溫의 편승된 기운을 갖고 있어 氣味에서 모두 偏勝된 약물이니 독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辛味는 發散表邪작용이 있어 氣血의 윤행을 촉진하는 行氣活血의 작용을 하여 能散, 能行, 能潤한다. 辛潤의 약성은 津液運行을 촉진하여 周身으로 敷布하고 蒸液化津하여 資化源하는 기능을 개괄하며, 약물이 인체에 작용한 후에 생긴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辛味가 滋補津液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陰虛津虧하여 생긴 燥症에는 마땅하지 않다.³⁴ 表邪를 發散시켜서 表證을 제거하는 것을 解表라고 하는데 땀을 나게 하여 表證을 解除하는 發汗의 작용을 말한다. 일부 解表藥은 發汗·解熱作用 이외에 丘疹의 透發을 促進시키고, 止咳平喘하며, 痛症을 완

화시키는 등의 작용을 지니고 있다. 약물의 성능과 임상적인 효능에 따라 辛溫解表藥과 辛涼解表藥으로 구분된다.³⁵ 辛溫解表藥은 주로 성미가 辛溫하여 風寒邪를 發散시키므로 外感風寒으로 인한 惡寒發熱, 無汗 또는 有汗, 頭痛, 身痛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辛涼解表藥은 주로 성미가 辛涼하므로 발산작용 또한 신은 해표약에 비하여 약하다. 風熱邪를 발산시키므로 外感風熱로 인한 發熱, 微惡風寒 등의 증상에 응용한다.³⁴

疾病의 狀態와 藥物의 性能에 근거하여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배합하여 응용하는 것을 配伍라고 한다. 질병의 상태가 비교적 복잡하다더라도 配伍를 통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치료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약물의 독작용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 가운데 相畏는 하나의 약물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다른 약물이 輕減하거나 除去하는 것으로 半夏畏生薑의 예가 있다.³⁴

漆毒을 푸는 방법이나 약물의 사용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의보감과 본초서적의 건칠 항목에서 칠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약물을 조사하였다. 蟹湯 1회, 蟹 12회, 蟹黃 1회로 계를 사용한 경우가 총 14예였고, 鷄子 7회, 鷄子清 3회, 鷄黃 1회로 총 11예에서 닭이 사용되었고, 蜀椒가 사용된 예가 6회, 紫蘇 2회, 紫蘇湯 2회로 紫蘇가 사용된 예가 4회, 紫菀 3회, 수양줄기 1회, 수양버들잎 2회로 수양버들이 3회, 漆姑草 1회, 漆姑草湯 1회로 漆姑草가 사용된 예가 2회, 杉木湯 1회, 杉木 1회로 삼목이 사용된 예가 2회, 油菜油 2회, 鐵漿 2회, 韭菜 2회, 白礬 2회, 黃櫨, 石蟹, 밤나무잎, 솔잎, 메밀줄기, 밤, 녹반, 豬脂, 白屈菜, 薄荷葉, 桑葉, 甘草, 繼花, 百部根, 菜油, 大薊, 腦茶末, 芒硝, 井中苔, 生薑汁이 각각 1회 씩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蟹, 鷄卵, 川椒, 紫蘇, 紫菀, 수양버들, 漆姑草, 杉木, 油菜油, 鐵漿, 韭菜, 明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수가 많은 약물 순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를 칠독에 제일 많이 사용하였는데 계를 탕으로 복용하거나, 계탕에 목욕을 하거나 전신에 퍼진 칠창에 생계를 찌워서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蟹는 鹹寒한 性을 갖고 있으며 肝胃에 入하며 清熱, 散血, 續絕傷하는데³⁶, 계는 겉은 딱딱하고 내부는 부드러운데 배속 노란 부분이 달 크기에 따라 커졌다 줄어들었다가 하므로 金과 水의 質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木과 火를 꺾는다고 하였다. 또 漆은 맵고 따듯하며 계는 짜고 차갑다. 차가운 것으로 따듯함을 이기고 짠 맛은 매운맛의 아들격이므로 자가 母를 쫓아서 변하기 때문에 氣가 저절로 풀어진다고 하고, 계는 血을 몰아내는데 漆을 氣化하면 血과 비슷하기 때문에 계를 敗한다고 하였다. 蟹黃은 濕을 녹여 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濕毒을 푼다.⁴ 동물성인 계는 영양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清熱하므로 다른 清熱약물보다 乾漆의 辛溫의 偏勝한 기운을 내려주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神農本草經에서 乾漆은 鷄子와 相惡한다고 하였다. 鷄子로 사용된 11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鷄子, 鷄蛋, 계단으로 표기되어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사용한 예가 7회, 鷄子 흰자로 사용된 예가 3회, 鷄黃 1회임을 알 수 있다. 鷄子白은 上에 있는 熱

을 淸하게 하여 苦酒湯으로 少陰咽痛을 치료하고, 鷄子黃은 涵育眞陰하므로 黃連阿膠湯으로 少陰病不得臥를 치료하였던 예가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 수재되어 있는데 鷄子白은 甘微寒하고 質淨氣淸하며 象天屬陽하여 淸潤肅降하여 育陰潤肺, 淸熱解毒, 行瘀止痛의 효능이 있어 咽痛, 目赤, 咳逆, 下痢, 瘧疾, 湯傷, 熱毒腫痛, 跌打損傷, 婦人難產, 血虛痙強을 치료한다. 한편, 鷄子黃은 甘微溫하고 質潤氣澤, 象地屬陰 溫潤振升하여 養陰血, 滋形體, 益精水, 補中氣, 熄風解痙, 定驚安神하는 효능이 있어 心煩不寐, 驚癇風痙, 虛勞咳衄, 胎漏崩前, 嘔逆下痢 湯傷熱瘡를 치료한다. 또한 卵白微寒而降하고 卵黃微溫而升하므로 全卵은 甘平하고 寒溫協調하고 升降이 相隨하여 變理陰陽, 調整升降, 諸和氣血하여 生理之常을 감당하게 한다.³⁷⁾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鷄子, 鷄卵으로 표기된 내용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되며, 鷄子淸은 陰液을 증진시켜 乾漆의 辛溫의 성질을 완화하고 淸熱解毒하는 효능을 이용한 해독방법이라면 鷄卵 전체를 사용한 방법은 기혈의 조화를 도모하여 맹렬한 성질을 완화하여 독성을 약화하여 사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鷄子를 사용하여 乾漆의 辛溫의 독성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와 계란은 동물성으로 영양공급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원이 닭의 알인 계란은 동물성이고 계는 해양동물이라는 다른 점이 있어 계와 계란의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蜀椒를 씹어 입이나 코에 바르면 해독된다는 것은 蜀椒가 辛溫하여 發散하고, 中焦를 따뜻하게 하고 寒을 풀어주며 濕을 제거하여 搔痒, 瘡疥를 치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杉木湯은 證類本草에 있는 處方³⁸⁾으로 杉木節一大升 橘葉 大腹皮 檳榔七枚 童便三大升으로 구성되어 乾脚氣, 癩亂, 喘悶欲絶을 치료한다고 되어있는데 杉木은 辛微溫하고 脾胃에 入하며 漆瘡와 風濕毒瘡, 脚氣, 奔豚을 치료한다. 川椒와 杉木을 사용하여 風濕으로 氣循環에 障礙가 발생되어 藥性이 布散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부의 제증상을 소탕시키므로서 해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紫蘇는 꿀꿀과의 차조기의 잎으로 味辛性溫하며 肺脾經으로 入하며 發汗解熱, 利尿, 健胃, 祛痰作用을 하여 주로 外感風寒을 치료하며, 行氣安胎하고 發表, 散寒, 理氣, 和榮하는 효능이 있어 感冒風寒을 치료하며 물고기와 계의 독을 푸는데 자소엽 30-60g을 사용한다. 陰囊濕疹에 外用하는데 자소엽 30g을 물로 다려 식혀서 患部에 浸洗하고 그 후에 환부에 땅콩기름을 바른다.³⁵⁾ 紫蘇湯은 外臺秘要의 처방으로 紫蘇一兩, 甘草 橘皮各1.5兩, 生薑3兩, 檳榔5枚로 구성되어 脚氣腫滿을 치료하는 처방 이다.³⁶⁾ 紫蘇는 解表약으로 辛溫한 氣味로 發表의 작용으로 발한을 하여 解毒³⁸⁾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용되었다.

紫菀은 영거시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탕알의 根으로 溫無毒하고 苦辛하고 肺心肝胃腎膀胱經에 귀경하여 益肺, 下氣, 消痰, 鎮咳, 定喘, 解渴의 효능이 있다. 紫菀은 辛하되 燥하지 않고 潤하되 寒하지 않고, 補하되 滯하지 않고 苦는 能히 下에 達하고 辛은 金을 益하고 性이 升하기도 하고 降하기도하며 淸金泄火의 요약이 된다. 그러나 辛散性滑하여 肺氣를 大泄하고 培養力이 적

어 暫用할 藥이요, 專用多用以 마땅하지 않고 사용시는 또한 二冬, 百部, 桑白, 地黃 등 苦寒藥과 參用해야 必야호로 害가 없을 것이다하여 오로지 肺鬱을 開泄하고 定咳降逆하고 積滯를 宣通한다고 하였다. 또한 紫菀은 消毒作用과 發散作用이 있다.⁴¹⁾ 肺氣의 宣發과 瀟降은 위로 선발하여 주리를 열어 發汗하고, 아래로 속강하여 利尿시켜서 邪氣를 除去하므로서 散寒, 驅風, 祛濕, 解毒, 涼血, 消腫, 散結하도록 한다.³⁹⁾ 紫菀이 漆毒을 해독한다는 기록은 없으나 肺氣를 泄하고 宣通하게 함으로써 즉, 肺의 宣發 기능을 도와서 독성을 빨리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漆瘡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버드나무과 식물인 垂柳의 잎인 수양엽은 苦寒하여 淸熱, 透疹, 利尿, 解毒하는 효능이 있다. 漆瘡, 疔瘡, 癰腫, 乳腺炎, 甲狀腺腫, 丹毒, 湯傷, 齒痛을 치료하고³⁹⁾, 수양잎 줄기는 性이 苦寒無毒하고 胃肝經으로 귀경하며 祛風, 消腫, 利尿, 止痛의 효능이 있어 風濕痺痛, 小便不通, 傳染性 肝炎, 風腫, 疔瘡, 丹毒, 蟲齒를 치료한다. 疔毒및 反花瘡의 치료에 柳枝와 잎을 달여 연고로 만들어 바르고⁴¹⁾, 화상, 탕상에 柳枝를 겹게 태워 연마하여 체로 쳐서 참기름에 개어 연고로 만들어 환부에 바른다.^{40,41)} 어떤 약물의 독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독성부위를 직접 除去하거나, 독성성분을 逸出시키거나, 독성물질을 破壞하거나, 독성물질을 分解하거나, 독성물질을 衍化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대다수 독약은 특이성 해독제가 없으므로 통용되는 해독제로 甘草 綠豆 生薑 등을 사용하고, 대량의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이는 肝臟解毒機能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독물의 排泄기능을 촉진한다. 강제로 利尿하게 하거나 泄瀉를 시키는 등의 排毒을 시행한다고 하였다.³³⁾ 수양엽과 줄기는 透疹을 돕고, 利尿하는 효능이 함께 있어서 피부의 증상들을 회복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漆姑草는 味苦辛涼하며 漆瘡, 禿瘡, 癰腫, 癩癧, 齧齒, 小兒乳積, 打撲損傷을 치료한다. 漆瘡에는 漆姑草를 찢어 絲瓜葉 汁을 넣어 유채기름으로 개어 붙인다.³⁶⁾ 漆姑草의 辛涼으로 解表發散을 도와 漆瘡의 회복을 도와주면서 性이 甘寒하여 淸熱解毒하는 효능이 있는 박과식물 絲瓜의 잎인 絲瓜葉의 즙⁴¹⁾을 넣고, 辛寒하며 肺肝脾大 歸經하여 皮膚소양과 습진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십자과식물 유채자의 지방유인 유채유⁴¹⁾를 넣어 피부의 증상 회복에 도움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

杉木은 杉科 식물인 杉의 心材 및 樹枝로 辛微溫하고 脾胃經으로 귀경한다. 穢氣를 물리치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濕毒을 풀어주고 逆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漆瘡, 風濕毒瘡, 脚氣, 奔豚, 心腹脹痛을 치료한다. 기미가 辛溫하여 濕毒을 풀어주고 약물의 기원이 목질부이기 때문에 疏泄의 기능이 있어 辛溫한 乾漆의 편승된 기를 풀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鐵漿은 철을 물에 담가 녹이 슨 후 생긴 용액으로 甘澁하며 心을 진정시키고 癩疾을 안정시키며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漆瘡에 씻고 손으로 문지르는데 이를 여러번 반복한다고 한다. 鐵漿의 해독기능에 安靜하는 효능을 이용하여 철독에 사용하였는데 鐵漿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참기름에 개어 바르기도 하였다. 鐵漿은 鎮心明目하고 諸毒劑한다고 하여⁴³⁾ 毒을 해독하며 진정시키므로 극렬한 약물의 반응을 진압할 수 있다고 본다.

菲菜는 나리과 식물인 부추의 잎으로 辛溫하기 때문에 散結하며, 溫中行氣하며 散血하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漆瘡로 가려울 때에 菲菜를 짓찧어 바른다.⁴¹⁾ 부추는 生 것이면 맵고 行血하며, 익힌 것이면 달고 補中하며, 益肝, 散滯, 導瘀하는 성질이 있다. 좀 시큼하기 때문에 간에 들어가 혈분을 다스리고 辛溫하기에 잘 散結할 수 있다. 무릇 血이 凝滯한 것을 모두 들게 할 수 있으니 血中行氣의 약이다. 부추의 성은 行하게 하고 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식용하는 것이 좋다. 李⁴⁴⁾는 疹이 막 피어오를 때에는 가급적 辛溫劑를 삼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寒涼劑를 쓰면 疹이 완전히 걸로 피어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완전히 透疹하여 걸로 피어나오게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부추가 기의 疏通을 원활하게 하여 漆毒을 없애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본다.

白礬은 性이 寒無毒하고 味는 澁酸하며 防腐收斂劑로서 分泌를 制止하는 작용이 있어 능히 濕熱을 收하고, 解毒, 止血의 약이 된다. 外用으로 물에 용해하여 洗眼, 洗腸, 腫洗滌 등에 사용하나 諸病에는 사용하지 못하니 이것은 收斂하므로 病의 毒氣를 內에 전하는 까닭이다⁴¹⁾고 하여 그 적용의 제한을 분명히 하였다.

綠礬은 性이 酸寒無毒하고 脾, 肝에 귀경하며 燥濕化痰 消積殺蟲 止血補血, 解毒斂瘡한다. 백반과 녹반으로 몸을 씻는 방법으로 해독에 이용하였는데 수렴작용이 있어 瘡口를 줄여주고 습을 거둬들여 삼출액이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데 지나치게 사용하면 피부로 투발하려는 작용을 제지하므로 독기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구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욱나무과 식물인 黃櫨의 목재인 黃櫨는 苦寒하여 煩熱을 제거하고 酒疸, 湯傷, 火傷, 漆瘡, 赤眼 등을 씻는다고 하는데⁴¹⁾, 이는 苦寒의 味로 건질의 熱을 치료하는 효능이 漆瘡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石蟹는 동의보감 내에서 가재와 고대절지동물 석해와 그 외 근연종 동물의 화석으로 각각 달리 기술이 되어있다. 外形篇 咽喉의 單方에 石蟹는 목구멍이 부어서 막힌 것을 치료하는데 石蟹를 짓찧어 즙을 내어 먹으면 목이 열린다⁴⁾고 하였고, 雜病篇 諸瘡의 漆瘡에 가재즙을 내서 자주 바른다⁴⁾고 하였고, 湯液篇 蟲部에서는 가재는 방계와 달라 생김새가 작고, 뒷걸음하고, 시냇물에서 사는 것이 다르다. 딱지 속의 누런 것을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헌데에 붙이면 좋다⁴⁾고 하여 石蟹는 가재를 지칭하였으나 湯液篇의 石部の 石蟹에는 癰腫, 漆瘡, 青盲과 눈에 군살과 瞼膜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바다의 게가 여러 해 지나는 동안 깊은 곳에서 뽀얀 물거품이 서로 엉겨서 돌이 된 것으로 이것은 바다 조수와 바람·물결에 밀려 나온 것을 주은 것으로 곱게 가루내어 水飛하여 쓴다고 하여 가재와 다름을 기술하였다.⁴⁾ 石蟹는 고대절지동물 石蟹와 그 외 근연종 동물의 화석으로 性이 酸寒하고 肝膽經에 歸경하며 淸肝明目, 消腫解毒하여 目赤, 瞼膜遮睛, 喉痺, 癰腫, 漆瘡, 金石의 毒을 푼다^{41,45)}고 하여 각각 그 내원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모두 漆瘡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松葉은 소나무과 식물인 만주흑송, 운남송 등의 잎으로 苦溫하고 心脾經에 入경하여 打撲傷, 捻挫, 피부 癢痒證, 漆瘡, 濕疹에 신선한 松葉을 달여 쇄고 씻기를 연속 여러 차례 씻는다.⁴⁶⁾

마디풀과의 식물 메밀의 줄기를 蕎麥粘이라고 하는데 酸寒하고, 심부에 생긴 조그마한 종기를 치료한다. 줄기와 잎은 모세혈관 취약성으로 일어난 高血壓병에 쓰이면 뇌출혈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모세혈관의 취약성으로 일어난 각종 出血證과 非結核性으로 일어난 肺出血도 예방하고²⁰⁾, 利尿작용이 있다.⁴²⁾

교맥은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인 메밀의 종자로 性이 甘涼하고 開胃寬腸, 下氣消積하는 효능이 있어 피부가 벌겍게 되면서 화끈거리고 열이 나는 병증이나 종기의 열독을 없애주고, 화상에도 가루를 개어서 환부에 붙여 치료한다.⁴²⁾ 맥각이나 교맥을 사용한 예도 그 寒涼의 味를 이용한 예라고 생각된다.

밤은 낙엽교목인 밤나무의 種仁으로 약용, 식용으로 사용되는데 味鹹溫하고, 脾胃腎經으로 歸경하고, 主益氣, 厚腸胃, 補腎氣, 令人忍飢하며, 癰腫, 癩癧, 小兒乾瘡, 小兒疳瘡, 小兒口瘡, 口腔潰瘍, 金瘡, 刀斧傷, 外傷 등 각종 瘡腫과 外傷에 사용한다.⁴⁷⁾ 밤을 짓찧어 小兒疳瘡, 筋骨浮腫, 刀斧傷의 상처에 붙여서 사용하였다.⁴¹⁾

豬脂는 멧돼지와 동물인 猪의 지방유이다. 性은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원기를 회복시키고 燥한 것을 촉촉하게하며 解毒하는 효능이 있다. 피부를 좋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手膏를 만들어 쓰면 피부가 갈라지지 않는다. 漆瘡의 가려운 증상에 豬膏를 자주 바른다.²⁸⁾ 저고를 사용하여 피부의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면서 燥한 것을 촉촉하게 하는 補濕性을 갖게 하고, 해독의 효능이 있어서 漆瘡로 피부의 氣血의 疏通이 되지 못하는 증상에 적용시킨다고 본다. 동의보감 내에서 豬脂가 사용된 예를 살펴서 漆瘡에 응용한 이유를 밝혀보면, 갑자기 목이 쉬어 목 선 소리를 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蜜脂煎을 늘 먹으면 肺가 녹여진다고 하여 돼지기름 1.2kg을 줄여서 찌꺼기를 버린 다음 꿀 600g을 넣고 다시 졸인 다음 이것을 걸러서 사기그릇에 담아 고가 되면 아무 때나 1숟가락씩 먹고, 손발이 트는데 生蠶蟲, 蠶子지게미, 소금을 음력 선달에 잡은 돼지기름과 함께 갈아서 쓰는데 뜨겁게 볶아 트는데 문지르면 잠깐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편안해진다.⁴⁾ 5가지 黃疸과 위 속에 마른 대변이 있어서 黃疸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데 돼지 기름 3홉을 하루 세 번 나누어 먹으면 마른 대변이 나오고 낫는다고 하였고, 水銀독에 살찐 돼지고기를 삶아 식혀서 먹거나 혹은 돼지기름을 먹는다.⁴⁾ 이상과 같이 油菜油나 豬脂 등을 사용하는 것은 外用제제의 용매로 사용되거나 건조한 피부를 潤하게 하는 목적과 독성물질을 흡착하여 배설에 용이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白屈菜는 양귀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애기뽕풀의 지상부로 苦辛溫有毒하며 鎮痛止咳, 利尿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急性性胃腸炎, 胃潰瘍, 膽囊炎으로 인한 腹部疼痛, 痢疾 증상을 완화시키고, 皮膚潰瘍, 음, 버짐 등에 쓰인다.⁴²⁾ 胃腸疼痛, 黃疸, 疥癬瘡腫, 사교상에 內服하고, 外用으로 찢어 즙을 바른다고 하여 漆瘡에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²⁷⁾는 애기뽕풀 전초를 짓찧어서 즙을 낸 것 2ml에 박하 잎을 짓찧어 생즙을 낸 것 2ml, 96% 알코올을 3ml를 잘 섞어서 병에 넣고 마개를 꼭 단아서 보관해 두고 옷이 오른 부위에 하루 3-5번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하였다. 이는 백굴채의 이뇨해독의 효과와 박하의 발산작용을 이용하여 폐

기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칙독을 땀과 소변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薄荷는 꿀풀과 식물인 薄荷 또는 家薄荷의 전주 또는 잎으로 辛涼하고, 肺肝經으로 귀경하며 風邪를 없애고 열을 내리고 辟穢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 달여서 漆瘡를 씻는다.⁴¹⁾ 박하는 피부를 개살하여 사기를 쫓아내어 해독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열이 위주가 된 칙독에 외용으로 씻는 방법으로 열을 내리면서 칙독을 해독할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桑葉은 뽕나무과의 갈잎큰키나무인 뽕나무, 산뽕나무, 가새뽕의 잎으로 甘苦寒하며 祛風清熱, 涼血明目하여 피부의 두드러기를 가라앉힌다.⁴²⁾ 蜈蚣咬傷에 桑葉과 明礬을 물에 끓여 상처 부위를 씻으니 5예에서 효과가 좋았고, 경피증에 5%桑葉 주사액을 매4ml씩 매일 기류주사를 1회하여 10일을 치료하여 5예중 4예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桑葉은 윤부미용의 효과가 있는데 桑葉 적당량을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하여 분말을 만들고, 별도로 검은깨를 가루로 내어 桑葉과 검은깨를 1 : 4의 비율로 혼합하여 꿀을 넣어 丸을 만들어서 매번 9g을 따뜻한 물에 복용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¹⁸⁾ 이는 상엽이 疏散風熱하여 기의 순환이 잘 이뤄져 피부에 영양공급이 잘 될 수 있었기 때문이므로 漆毒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甘草는 豆科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甘草의 根으로 性이 溫하고 足太陰厥陰 手足十二經에 入하여 解熱百藥毒하고 모든 약물과 協和하여 약물 상호간 爭鬪함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熱藥이 이를 얻으면 그 熱이 緩和되고, 寒藥이 이를 얻으면 그 찬기운이 완화되어 寒熱相雜하여 사용하여 平을 얻게 한다.⁴³⁾ 清熱解毒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痘瘡腫毒에 대해 內服이나 外用의 방법이 모두 적당인데, 초기에는 單方으로도 양호하다.⁴⁶⁾ 甘草는 乾漆 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이 서로 협조하여 처방 내에서 조화를 갖게 하고, 편승된 기운을 완화시키므로 乾漆의 해독에 사용될 수 있다.

繼花葉은 금루매과의 식물의 잎이나 줄기로 甘涼하여 解熱, 止瀉, 止血의 효과가 있어 火傷, 黃水瘡를 치료한다. 火傷에는 繼花葉을 약성이 남게 태운 다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⁴¹⁾ 계화엽은 서늘한 약성으로 해열함으로써 칙독을 치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百部는 백부과식물인 만생백부의 덩이뿌리로 溫甘無毒하며 肺로 귀경하며 肺氣를 溫潤하게 하고, 止咳, 殺蟲하는 효능이 있어 風寒咳嗽, 百日咳, 老人性喘息, 蛔蟲症, 皮膚疥癬, 濕疹을 치료한다. 百部는 微溫이라고 하나 潤하여 燥하지 않고 開氣降泄하여 모든 咳嗽에 적용되며 더욱이 久嗽虛嗽에는 필수약이 된다.⁴¹⁾

油菜子油는 십자과식물인 油菜의 열매에서 얻은 지방유로 火傷, 濕疹을 치료하는데 無名腫毒, 風疹, 皮膚搔痒, 濕疹의 치료에 신선한 유채자유를 1일 수회씩 바르는데 치료 중에는 물로 患部를 씻으면 안 된다.⁴¹⁾

大薊은 엉거시과의 식물인 대계의 전초 또는 뿌리로 甘涼하고 肝脾經으로 歸經하며 涼血止血祛瘀, 消腫의 효능이 있어 瘡癰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경우에 새살이 돌아나게 하고 고풍을 빼내고, 肺熱에 의한 咳血, 熱結로 인한 血淋, 부스럼, 옷이 올라 생

긴 피부병, 화상을 치료한다.⁴¹⁾ 大薊는 苦瀉涼清하고 그 性이 下行하고 心肝의 血分으로 入하므로 血熱이 妄行하여 일어난 각종 출혈증과 火熱毒邪가 蘊結하여 일어난 癰疽瘡毒 등 症에 적용된다. 尋癩疹에 대계 100g을 물로 달여 복용하면 44예에서 1~3劑에 34명이 치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¹⁸⁾ 그러므로 건칠의 피부증상에도 毒邪가 蘊結되지 못하게 하여 대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腦茶는 차의 어린잎을 말하는데 漆瘡에 腦茶의 가루를 기름에 개어 붙인다고하였는데⁴⁾ 동의보감 외형편의 頭의 작살차는 머리와 눈을 맑게 하여 달여서 늘 먹는데 차썩과 잎도 효과가 같다고 하였고,⁴⁾ 苦茶는 작살차라 표기하고, 옛 사람들은 차의 싹을 雀舌, 麥顆하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어린 잎을 말한 것으로 곧 腦茶라는 것이 이것이다. 성질은 약간 차며, 맛은 달고 쓰고 독이 없다. 기를 내리고 오랜 食滯를 삭이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 消渴證을 낮게 하고 잠을 덜 자게 하는데 心包와 肝에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먹으면 기름이 빠져서 여위게 된다⁴⁾고 하여 漆瘡에 효과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漆瘡를 해독한 것으로 사료된다.

芒硝는 천연산 망초를 결정 정제한 것으로 味鹹苦 性寒하고 胃大腸三焦에 귀경한다.³⁵⁾ 芒硝는 性大寒 味鹹 有小毒하여 五藏積聚, 破癥瘕, 通五淋, 利大小便, 腹中痰實, 傷寒內熱, 胃閉及黃疸, 消癰瘰, 去漆瘡하고, 能히 破血墮胎하고, 女子月經閉를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⁴⁾ 漆瘡치료에 芒硝 250g을 끓는 물에 담가 씻는다.⁴¹⁾ 이는 망초의 鹹寒한 性味를 이용하여 漆瘡를 치료한 것이다.

井中苔는 물 속의 이끼로 性大寒하여 熱瘡, 漆瘡, 水腫을 치료한다.⁴⁾ 이끼는 수분을 함유하는 성질이 있는데다 지하의 우물물의 냉기를 갖고 있으므로 열창이나 漆瘡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生薑은 생강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생강의 근경으로 溫無毒하고 辛하다. 肺心脾胃經에 귀경하는데 性이 升發通散하므로 解表·散寒·止嘔·行氣·消痰의 要藥이 된다. 생강의 효과가 매우 많고 약용의 범위도 광범하여 古方 중에 生薑을 사용한 것이 十에 六七이요, 宣通補劑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약용 외에 조미료로 사용하여 辟穢解毒하므로 日用に 더욱 수요가 많다. 諸毒, 半夏, 南星, 禽獸 등을 解하니 이는 宣發하는 공력으로 말미암아 辟除하기 때문이다. 무릇 辛味가 肺에 入하여 肺가 旺하면 一身의 氣가 모두 나의 소용이 되니 中焦의 元氣가 充足하고 脾胃의 出納하는 작용이 壯하고 行하여 邪氣가 容納하지 못한다.⁴¹⁾ 생강의 辛味가 肺의 宣發기능을 도와 제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乾漆의 독성도 완화시켜 준다고 판단된다.

漆瘡는 옷나무의 뿌리, 줄기, 잎, 미성숙한 열매에 들어 있는 독성분의 樹脂에 접촉을 하여 발생하면 피부가 紅腫하고 가렵고 아프며 丘疹이나 疱疹이 일어나고, 잘못 복용하면 구강염, 궤양, 구토, 복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중독성신병이 발생하게 된다.³³⁾

본초서적 가운데 漆瘡항목 이외 자료 가운데서 칠을 해독하는 약물을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된 약물들에 대한 性味, 歸經, 效能 및 그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景天은 평의 비름과의 식물 전초로 苦酸寒하고 腎肝經으로 귀경한다. 淸熱, 解毒, 止血하는 효능이 있어 丹毒, 遊風, 煩熱, 驚狂, 咯血, 吐血, 疔瘡, 腫毒, 風疹, 漆瘡을 치료한다. 漆瘡에 손으로 비벼서 바른다. 苦楝은 엉거시과의 식물 中國薊의 포기로 甘苦涼하고, 淸熱涼血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독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얼굴 및 전신에 생긴 漆瘡를 치료한다. 葎根은 부추의 뿌리 및 비늘줄기로 辛溫하여 溫中 行氣하며 瘀血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여러 가지 피부병을 치료한다. 吐血과 코피를 치료하고, 지짚은 즙을 漆瘡에 바른다. 金絲桃는 물레나무과의 식물 금사도의 전초로 苦澁溫하며 淸熱解毒하며 祛風濕消腫하는 효능이 있다. 漆瘡에 金絲桃의 뿌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참기름 또는 소주와 고루 섞어서 아픈 곳에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독의 기능을 높일 목적으로 소주나 참기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半邊蓮은 길경과 식물인 半邊蓮의 뿌리가 달린 전초로 甘平하고 利小便하고 消腫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漆瘡를 치료한다. 白毛藤은 가지과 식물인 白英의 전초로 甘苦涼하고 淸熱祛濕, 祛風解毒하여 痢疾, 黃疸, 水腫, 淋病, 風濕性關節痛, 丹毒, 疔瘡, 惡瘡, 漆瘡를 치료한다. 附地菜(鷄腸草)는 지치과 식물 부지채의 전초로 辛苦涼하며 遺尿症, 赤白 痢疾, 등창, 부스럼, 수족의 마비 등을 치료한다. 漆瘡瘡痒의 치료에 鷄腸草를 짓찧어 바른다. 佛甲草(狗牙瓣)는 景天科 식물 불갑초의 전초로 甘寒하여 淸熱消腫解毒하여 咽喉腫痛, 癰腫, 疔瘡, 丹毒, 湯傷, 사교상, 黃疸, 痢疾을 치료한다. 漆瘡에 鮮狗牙瓣을 짓찧어 붙인다. 絲綿木은 화살나무 식물인 絲綿木의 根, 樹皮, 果實 또는 그 枝葉으로 苦澁寒微毒하고 風濕을 제거하고 血을 잘 순환하게 하며 止血하는 효능이 있어 風濕性 關節炎, 腰痛, 閉塞性 血栓, 血管炎, 鼻出血, 漆瘡, 痔疾을 치료한다. 漆瘡에 絲綿木의 가지나 잎의 적당량으로 煎洗하거나 그 액으로 씻는다. 같은 분량으로 香樟木과 함께 달여서 그 湯液으로 씻거나 씻어도 좋다고 하였는데 香樟木은 消食하는 약물로 목질부이어서 소통을 원활하기 하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면목과 함께 配伍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算盤子葉은 대극과 식물 算盤子의 枝葉으로 苦澁涼하여 淸熱祛濕하고 消腫하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痢疾, 黃疸, 淋濁, 帶下, 感氣, 咽喉腫痛, 癰腫, 漆瘡, 皮疹瘡痒 등을 치료한다. 濕을 제거하고 어혈을 잘 없애며 漆毒, 蛇毒을 제거한다. 漆瘡, 赤白 痢疾, 打撲傷을 치료하고 蛇咬毒을 치료한다.⁴¹⁾ 습이 장부 경락에 유체되면 氣機流行을 阻遏하여 기기의 升降이 실조되어 경락이 阻滯되어 不暢하게 되므로 小便短澀, 大便不常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濕의 성질은 穢濁한데 濕濁이 內盛하여 장기간 정체하면서 제거되지 않으면 毒이 釀成된다. 습독이 체내에 정체되면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 다른 병변이 유발되는데 습독이 肌膚에 응쳐 濕毒症을 일으킬 때에는 대부분 小腿과 足踝 등에서 발생하며 피부가 붉게 되고, 계속해서 丘疹, 水疱가 생기고 가려우며 터트리면 누런 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⁴⁹⁾고하여 습이 열로 화하여 독이 되어 인체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위의 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때 算盤子葉과 같은 약물로 습이 내성되는 것을 제거하여 해독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山楂는 장미과 식물인 산사 또는 야산사의 열매로 酸甘微溫

하고 脾胃肝經에 귀경하여 食積을 제거하고 어혈을 없애며 蟲蟲을 구제하는 효능이 있어, 肉食으로 인한 積滯, 癥瘕, 痰飲, 痞滿, 泄瀉, 疝氣, 產後兒枕痛, 嬰兒의 食滯를 치료한다. 삶은 즙으로 漆瘡를 씻는다.⁴¹⁾ 山楂를 외용으로 사용한 예로 동상에 동상의 면적의 크고 작음을 살펴 山楂를 숯 불에 쪄인 뒤 찢어서 細辛 2g을 넣어 환처에 붙여 매일 교환하여 4-5회 하면 치유된다고 하고, 山楂가루를 붙여서 수술 뒤에 癢痕이나 瘡癤癢痕을 치료한 12예에서 2예의 고령자가 斑痕 형성시간을 연장한 것을 제외하고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가 있다.¹⁹⁾ 위의 보고로 볼 때 山楂는 소화기 내에서의 消食뿐만 아니라 피부에서도 消食化積의 기능이 通用되므로 漆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松木皮는 소나무의 껍질로 祛風祛濕으로 瘡를 수렴하는 효능을 이용하여 물로 달여 그 증기를 쏘이면서 漆瘡의 부위를 씻는 방법으로 외용으로 사용하였다.

碎米柴는 콩과 식물 小葉三點金草의 전초로 甘平하여 열을 내리고 습을 배출시키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서 漆瘡를 치료하는데 비벼서 바르면 漆瘡를 치료한다.

松菜는 十字花科 식물인 青菜의 어린 포기로 甘平하고 腸胃經으로 귀경하여 열을 내리고 煩悶을 제거하며 腸胃가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漆瘡를 치료한다.

羊乳는 소과 동물인 山羊 또는 綿羊의 젖으로 甘溫하여 溫潤補虛하는 효능이 있어 虛勞羸弱, 消渴, 反胃, 噎逆, 口瘡, 漆瘡를 치료한다.

吳茱萸根은 운향과 식물인 오수유의 뿌리 혹은 뿌리의 韌皮部으로 辛苦熱하여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溫中하며 기생충을 구제하는 효능이 있다. 껍질은 漆瘡를 치료한다.

油桐葉은 대극과 식물인 유동의 어린 잎으로 浮氣를 가라앉히고 해독한다. 癰腫, 丹毒, 정갱이 부스럼, 凍傷, 음, 火傷, 痢疾을 치료한다. 漆瘡에 油桐葉의 달인 물로 씻는다.

茵陳蒿는 국화과 식물인 인진호의 어린줄기와 잎으로 苦辛涼하며 肝脾膀胱經으로 귀경하며 感氣, 黃疸, 漆瘡의 치료에 茵陳 20g을 달여서 복용한다

雀梅藤은 갈매나무과의 식물인 雀梅藤의 어린 가지의 잎으로 疥瘡, 漆瘡, 水腫을 치료한다. 雀梅藤은 뽕나무과 식물인 筆管榕의 잎으로 甘微苦平하며 열을 내리고 기를 순환시키며 濕을 제거하고 疹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漆瘡에 신선한 雀梅葉 1줌을 달여서 식혀 씻는다

芎藭根은 췌기풀과 식물인 芎藭의 뿌리로 甘寒하며 足厥陰經의 血分으로 입하며 熱을 내리고 止血하며 解毒하고 瘀血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熱病, 大渴, 大狂, 血淋, 癰閉, 吐血, 下血, 赤白帶下, 丹毒, 癰腫, 打撲傷,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 漆瘡, 紅腫을 치료한다.

天胡荽는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天胡荽의 전초로 苦辛寒하며 熱을 내리고 利尿하며 浮氣를 가라앉히고 解毒하여 黃疸, 赤白痢, 淋疾,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目翳, 喉腫, 癰疽등창, 打撲으로 인한 瘀血과 종을 치료하여 급성 扁桃腺炎, 및 咽喉炎, 疥癬, 뱀에 물린 상처, 癰疽, 漆瘡, 風濕痛, 挫傷 등을 치료한다. 漆大姑는 대극과 식물인 毛果算盤子의 가지와 잎으로 苦甘澁平

하며 風邪를 몰아내고 濕을 거두며 瘀血을 없애주고 止血하며 浮氣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急性胃腸炎, 痢疾, 風濕性關節炎, 打撲傷, 外傷 出血, 漆瘡, 濕疹, 皮膚炎을 치료한다. 漆瘡로 인한 피부의 充血, 浮腫 및 癢痒證은 漆大姑엽의 다린 물로 환부를 씻는다.

荷葉은 수련과 식물인 연의 잎으로 溫平辛하며 心肝脾經으로 귀경하며 暑氣를 제거하고 濕을 배출시키며 맑은 陽氣를 升發하고 止血하는 효능이 있다. 濕에 의한 泄瀉, 眩氣症, 수기에 의한 浮腫, 腦頭風, 吐血, 鼻出血, 崩漏, 血便, 産後의 血暈을 치료한다. 漆瘡에 발린 荷葉 1근을 1말의 물로 5되 까지 졸인다. 이 달인 물로 환부를 씻고 다시 貫衆 가루를 바른 다음 그것이 마르면 지방유를 그 위에 바른다.

葎菜는 유채과 식물 한채의 전초 또는 꽃으로 辛涼하며 熱을 내리고 利尿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月經을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感氣, 열수, 咽喉의 疼痛, 發疹이 불안정한 癩疹, 風濕性關節炎, 黃疸, 水腫, 疔腫, 月經 中止, 打撲傷을 치료한다. 의용하면 漆瘡, 癰腫을 치료한다. 漆瘡의 치료에 신선한 野油菜의 짙은 즙을 바른다.

莧은 비름과 식물 현의 莖葉으로 감량하며 熱을 내리고 竅를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赤白痢,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漆瘡癢疹의 치료에 莧菜를 달여서 환부를 씻는다.

花椒葉은 운향과 식물인 화초의 잎으로 辛熱하며 霍亂으로 인한 근육 경련, 脚氣, 漆瘡, 疥癬을 치료한다. 기생충을 驅除하며 脚氣 및 漆瘡를 씻는다.

黃練芽는 옷나무과 식물인 황련목의 엽아로 苦澁寒하며 熱을 내리고 해독하며 渴證을 멈추는 효능이 있다. 暑熱에 의한 口渴, 痧症, 痢疾, 咽喉 浮腫과 疼痛, 입과 혀의 糜爛, 풍습으로 인한 瘡, 漆瘡를 치료한다. 風濕瘡과 漆瘡 초기의 치료에 黃連木葉 또는 나무껍질 반 근, 板栗根皮 150g~187.5g을 잘 찢어 비등하기 시작한 미음에 담가 덮개를 덮고 1~2시간 푹 쪄서 환부를 문지르고 씻는다.

黃蘆枝葉은 寒苦하며 濕熱을 제거하고 黃疸, 湯傷, 火傷, 漆瘡를 치료한다.

黑面葉은 대극과 식물인 흑면엽의 어린 가지와 잎으로 苦寒하며 濕熱을 제거하고 瘀血이나 체한 음식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腹痛, 吐瀉, 疔毒, 瘡癤, 濕疹 皮膚炎, 漆瘡, 鶴膝風, 打撲傷에 의한 浮腫과 疼痛을 치료한다. 瘡를 가라앉히고 소독한다. 爛肉, 漆瘡를 씻고 牛毒을 풀어준다. 제독에 접촉한 경우에는 이것을 복용하면 향긋한 느낌을 받는다.

黑面葉根은 대극과 식물 흑면엽의 뿌리로 苦寒하며 風邪를 몰아내고 熱을 내리며 瘀血을 없애주고 浮氣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黑面熱毒, 扁桃腺炎, 熱瀉, 漆瘡를 치료한다. 瘀血을 없애주고 浮氣를 가라앉히며 瘡를 씻고 漆瘡를 치료한다.

稗米는 찧기장쌀로 性微寒하고, 味甘無毒하며 利大腸, 療漆瘡, 殺瘡疥毒熱한다.⁴⁾

滑石은 규산염류의 광물인 활석의 덩어리로 甘寒하고 胃膀胱에 歸經하여 清熱, 祛濕하고 通竅하여 水道를 잘 통하게 하여 모든 瘡腫毒을 치료하므로 清熱祛濕으로 熱毒을 없애고, 利尿기

능까지 갖추어 漆毒을 해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본다.

寒泉水는 甘平無毒하여 消渴, 反胃, 熱淋 등을 치료하는데 大小便을 잘 나가게 하므로 利尿의 기능과 함께 상처 부위를 씻어내어 漆毒을 푸는 것으로 판단된다.

貫衆은 주로 족제비 고사리과의 식물인 조경린모골의 뿌리 줄기로 苦涼하고, 肝胃로 귀경하여 寸蟲, 蛔蟲을 없애며 清熱解毒하고 涼血止血하고 濕熱癩疹, 吐血, 衄血, 便血, 帶下를 치료한다. 옷이 올라 생긴 피부병에 貫衆을 가루 내어 바르고 마르면 기름과 함께 바른다.⁴¹⁾

이외에 식물기름이 사용되었는데 落花生油⁴¹⁾는 콩과 식물인 땅콩의 종자에서 짜낸 지방유이다. 甘平하고 滑腸下積하는 효능이 있고, 劑製중 油性 주사액의 용매나 油性軟膏 등의 기제로도 사용한다.

참기름은香油이라고 하는데 大小腸의 기름 잘 통하게 한다.⁴⁾ 참기름 하나만 먹거나 들깨죽에 타서 먹기도 하며⁴⁾, 三焦에 있는 熱毒기운을 없애고⁴⁾, 모든 蟲을 죽이는데 참기름 1홉, 달걀 2개, 芴稱 40g을 고루 섞어서 먹이면 곧 蟲이 나온다⁴⁾ 고 하여 참기름에 개어 연고로 바르는 것은 해독과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甘豆湯은 甘草 黑豆 각20g으로 구성되어 百藥百物의 독을 없애는 처방이다.⁴³⁾ 鐵漿, 黃蘆, 甘豆湯을 복용하는 것은 解毒을 잘하는 약물들을 사용하여 漆毒을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칠을 해독하는 약물로 조사된 약물은 총68종으로 栗, 白礬, 蕎麥粒, 白屈菜, 桑葉, 繼花葉, 百部根, 滑石, 生薑汁, 紫菀, 絲瓜葉의 11종의 약물은 漆瘡 치료에 보조약물로 사용이 되었고 그 외 57종의 약물이 漆瘡를 치료하는 약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7종 약물에 대한 해독 방법을 분류하면 毛枝木葉, 朴樹葉, 栗樹皮, 杉皮, 石蟹(가재)는 기미와 악성이 기록이 없이 漆瘡를 치료한다는 내용만 있어서 어떤 작용으로 漆瘡를 치료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漆毒을 푸는 약물로 清熱解毒하는 효능으로는 景天, 苦芩, 金絲桃, 附地菜(鷄腸草), 苧麻根, 茵陳蒿, 黑面葉, 葎菜, 黃練芽, 石蟹, 腦茶末, 井中苔, 寒泉水, 貫衆으로 총 14종으로 가장 많았고, 白毛藤, 雀榕葉은 清熱利濕祛風解毒하고, 佛甲草(狗牙瓣), 菘菜, 柳葉은 清熱消腫하고, 碎米柴는 清熱利濕, 天胡荽는 清熱利尿消腫하고, 莧은 清熱通竅하여 漆毒을 해독하며 芴稱은 瀉熱潤燥하고, 稗米는 利大腸하여 漆毒을 大腸의 기능을 의뢰하여 해독하고, 絲綿木, 算盤子葉, 松木皮, 漆大姑는 風濕을 없애서 해독하고, 葎根, 葎菜, 吳茱萸根은 行氣하여 해독하고, 鷄子黃, 羊乳, 豬脂는 滋陰시켜 漆毒을 치료하였으며, 漆姑草, 蟹는 散結消腫하고, 半邊蓮, 雀梅藤은 利水消腫하여 해독하고, 花椒, 花椒葉은 溫性으로 거습하고, 鐵漿은 鎮靜시키고, 黃蘆는 煩熱을 치료하고, 杉木은 祛穢하고, 油桐葉은 消腫하고, 山楂는 食積을 치료하고, 松葉은 祛風活絡하고, 薄荷는 消風散熱하고, 黑面葉根은 祛風清熱祛穢하고, 黃蘆枝葉은 濕熱을 제거하고, 荷葉은 祛濕하고, 大薊은 涼血祛瘀消腫하여 漆毒을 해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漆毒을 푸는데 清熱解毒의 효과가 있는 景天, 苦芩, 金絲桃, 附地菜(鷄腸草), 苧麻根, 茵陳蒿, 黑面葉, 葎菜, 黃練芽, 石蟹, 腦

茶末, 井中苔, 寒泉水, 貫衆의 기미는 각각 苦酸寒, 甘苦涼, 苦澁溫, 辛苦涼, 甘寒, 辛涼, 甘淡涼, 苦澁寒, 苦寒, 鹹寒, 甘涼, 大寒, 平甘, 苦涼으로 나타나 金絲桃의 溫性과 寒泉水의 甘平을 제외하고 12종의 약물의 性이 涼이나 寒으로 나타났고, 苦味가 6중, 辛味가 1중, 鹹味가 1중, 辛苦味 1중, 甘味가 3중, 淡味 1중, 平味가 1중으로 대부분의 약품이 性은 차고, 味는 苦인 약들임을 알 수 있었다.

苦味는 降泄, 泄下, 燥濕, 堅陰의 작용이 있어 通下瀉火, 降氣平喘, 清火除煩으로 열을 내리며, 습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또한 苦味의 瀉火作用으로써 存陰(堅陰)할 수 있어, 腎陰虧하여 相火亢盛證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고미가 주가된 약물은 청열작용과 음액의 손상을 적게하여 건질의 신온한 기미가 편증되어 나타나는 독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味라고 볼 수 있다.³⁴⁾

清熱解毒의 효과를 갖는 약물이 가지는 解毒의 의미는 火熱의 壅盛으로 인한 毒으로 熱毒 혹은 火毒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清熱邪 혹은 清火邪하므로서 熱毒이나 火毒을 解除하는 약물을 清熱解毒藥類라 칭한다. 清熱解毒하는 약물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丹毒, 斑疹, 瘡腫 등의 증에 대하여 분별하여 적용하며 약물을 응용할 때에는 적당한 약물을 선택하여야 된다. 熱毒이 血分에 있으면 마땅히 清熱解毒 약물에 涼血藥을 배합하여 써야 하며, 火毒熾烈에는 瀉火藥을 배합하고, 挾濕에는 燥濕藥을 배합하고, 이의 裏急後重이 있을 때는 利氣調氣藥을 배합하고, 瘡癰喉痺의 증에는 外用藥을 겸하는 것이 좋다⁴⁵⁾고 하여 漆瘡의 치료약물에도 清熱解毒이 기본으로 삼고 濕이 끼어 있으면 清熱燥濕하는 약을 配伍하여 쓸 수 있다고 본다.

漆毒을 치료하는 52종의 약물 가운데 辛溫, 辛熱의 약성을 가진 약물은 부근, 부채, 빈목, 오수유근, 화초로 5종, 辛涼의 약성을 가진 약품으로 박하, 부지채, 천소유, 철고초, 하엽, 한채로 6종으로 나타났다. 화초와 삼목은 앞서 기술한 사용빈도에서 많은 빈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辛溫發散의 용도로도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芫은 外傷瘡腫, 白礬은 解毒收斂의 약효로 물에 녹여 사용하거나 다른 창구를 작게 하는 기능, 蕎麥稈은 蕎麥의 찬 성질과 모세혈관의 기능을 개선시켜 환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며, 白屈菜는 利尿解毒의 작용으로, 桑葉은 清熱祛風하여 피부의 증상을 쉽게 회복되도록 하며, 繼花葉은 解熱, 百部根은 肺氣가 溫潤하게 잘 소통되도록 하여 他藥物의 효과를 도와주고, 滑石은 清熱通竅로 水道를 잘 통하게 하여 모든 腫脹毒을 제거하고, 生薑汁은 辛溫으로 解毒을 하고 衛氣를 고르게 하여 쉽게 회복에 이르게 하고, 紫菀은 肺氣의 소통을 잘 되도록 하여 漆瘡를 치료하는 약물의 약효를 증진시키고, 絲瓜葉은 清熱解毒하는 약성을 이용하여 漆瘡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百部根, 紫菀, 生薑은 귀경이 폐경으로 肺氣의 宣發기능을 도와 피부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교맥갈, 백곡채, 활석, 뇌다말, 정중태, 한천수는 利尿작용으로 피부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보조역할을 하고, 출미와 한천수는 大腸을 이롭게 하여 漆瘡의 회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⁴⁴⁾는 便秘가 생기면 내부 氣機출입이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투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벼운 通便劑를 사용하는

데 적당히 通腑하는 약을 쓰되 지나치면 陽氣가 함몰되어 透疹이 겹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 빠져들어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옷의 열성으로 체표부로 옷의 약성이 적심하게 퍼져 나가면서 피부자극이 극렬해 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通腑의 방법으로 通便을 하게 하거나 利尿를 시키는 방법으로 격렬한 반응의 방향을 체표쪽에서 二便으로 돌리는 방법이 옷의 효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옷독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외에 南⁵⁰⁾은 대개 민간에서는 닭을 잡아 고아서 생기는 기름이나 닭국물을 환처에 바르면 치료된다고 하나 이 방법은 완전한 것이 못되어 사용한 방법이 생살을 깨물어서 그것을 환부에 문질러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여 너무도 간단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무시해서는 안되고, 이 병이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상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들기름을 복용하면 된다고 하였다. 쌀은 해독기능이 있고 진액이 있어서 해독을 겸하여 영양을 공급하여주고, 침의 해독기능이 보좌하므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신³⁾은 옷을 닭에 넣어서 함께 탕으로 끓이거나 쌀을 넣어 죽을 주고 또는 닭을 넣지 않아도 달걀 흰자를 풀어서 옷과 함께 섞으면 옷을 탈 염려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하였다.

全身性 接觸皮膚炎은 어떤 약물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化學物質을 局所塗布하여 알레르기성 接觸皮膚炎이 생길 수 있는 사람에게 같은 물질을 口腔으로 投與하면 濕疹樣의 피부염을 全身性으로 일으킨다. 즉, 接觸에 의해 감작된 사람이 동일 물질을 經口服用하거나 吸入하였을 때 이것이 혈액을 따라 전신의 피부에 도달하여 발생한다.

全身性 接觸皮膚炎의 症狀은 이전의 접촉부위에 局所的인 發赤이 생기거나, 對稱的인 斑狀이나, 丘疹狀 發疹, 蕁麻疹이나 anaphylaxis 등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多型紅斑이나 血管炎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全身症狀(顔面浮腫, 瘙癢感, 發熱)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참웃나무와 검양웃나무가 接觸皮膚炎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밝혀져 있는데 웃나무에 의한 接觸皮膚炎에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接觸皮膚炎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옷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며, 또한 웃나무즙의 직접적인 섭취에 의한 全身性 接觸皮膚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장병에 웃나무와 닭을 함께 달여 먹는 풍습이 있어서 혈행성으로 全身性 接觸皮膚炎을 일으키기도 한다. 웃나무즙에 의한 全身性 接觸皮膚炎을 한의학에서는 漆瘡으로 본다.²⁹⁾

진²¹⁾은 漆瘡의 발생원인에 차이가 있으나, 칠에 접촉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칠에 접촉하지 않고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진⁵¹⁾은 漆瘡은 生漆의 기운을 냄새 맡아도 瘡가 생긴다고 하여 칠에 접촉하지 않고도 漆瘡이 발생함을 말하였다. 최²⁷⁾는 연료로 웃나무를 사용하여 연기에도 옷이 오른다고 하였다.

漆瘡은 사람의 皮毛腠理가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漆의 辛熱한 毒에 感觸되어 생기고^{21,52)}, 新漆은 辛熱有毒하기 때문에 사람의 病質이 偏僻되고, 주리가 不密한데 그 기에 感觸하면 발생된다²²⁾고하여 漆毒에 노출되면 다 漆瘡이 되는 것이 아니

라 감촉된 사람의 기질의 차이와 주리의 치밀함 여부에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조²⁰⁾도 漆瘡은 개인의 體質의 素因, 腠理不密한 內因과 外因인 漆의 辛熱之毒의 結合에 의해서 발생하며, 漆의 有毒한 氣運이 內臟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진⁵¹⁾은 대개 칠의 기운은 본래 무독한데 칠이 收濕하여 漆氣가 侵入하면 肺氣가 斂藏하여 사람의 肺經에 微濕이 있게 되어 안에서 皮毛를 滋潤하지 못하고, 漆의 기운이 반대로 人身에 들어오게 하여 漆과 몸이 서로 겨루게(相格)되어 피부에 腫이 생기고 痒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여 칠의 독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칠의 성질에 의해 기기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피부에 참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漆瘡은 초기에 소양이 발생하고^{21,22,52)}, 점차 頭面이 虛腫하고²³⁾, 긁으면 점차 마치 癩疹이 출현한 피부와 같아지고 온몸으로 두루 퍼지며 피부가 갈라지고 문드러지고, 물이 흐르며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寒熱이 교대로 나타난다.^{21,22,52)} 헌곳의 상처는 건조하게되어 손톱으로 긁게 되는데 심하게 긁으면 육신거리며 아프고, 화가 피부를 제압하는 것 같아서 건조해지고 갈라지게 된다.⁵¹⁾ 몸 전체의 上下에 모두 붓고, 뽀루지와 같은 瘡, 火刺로 찌르는 듯한 통증, 피부의 燥烈, 3일에서 5일 사이에 風熱瘡과 비교하여, 혹은 아프고, 혹은 가려운 차이가 있다.⁵³⁾ 옷에 약한 사람이 옷을 함부로 먹거나 손을 대면 심하게 옷이 올라 죽을 수도 있을 정도²⁷⁾라고 漆毒의 危害함을 논하였다.

14종의 외과서적에서의 漆毒에 대한 치료 자료를 살펴보면 內服藥을 복용하고 外用藥을 사용한 경우가 11예, 外用藥만 사용한 경우가 3예가 있었다.

진⁵⁴⁾은 한사람이 漆瘡으로 嘔吐하였는데 中氣가 弱한 연유로 漆毒이 침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六君子에 砂仁, 藿香, 酒炒芍藥을 가하여 투약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連翹消毒散을 복용시키는데, 嘔吐가 혹시 盛하면 다시 전번의 약으로 치료하고 外用으로 참기름을 사용하여 鐵銹분말을 반죽하여 바르면 회복된다고 하여 漆毒의 해독에 우선한 것이 아니라 漆毒에 노출된 환자의 장부의 허실을 살펴서 漆毒을 빨리 해독할 수 있도록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 뒤 그래도 漆毒이 해독되지 않으면 連翹消毒散을 복용시키고, 外用으로 漆毒을 치료하게 한 것으로 漆毒치료의 근본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內服藥物療法으로 사용된 약물로는 참기름을 1-2사발 복용하게 하는 방법 2예, 化斑解毒湯을 복용시킨 2예, 게를 옹이로 찢어서 술로 넣고 잘 저은 뒤 여과하여 마시는 방법 1예, 清熱解毒하는 약물로 처방을 구성하여 복용시킨 예가 6예로 나타났고, 外用으로 사용한 약물들을 살펴보면 참기름을 이용하여 철수분말을 개어 바른 1예, 버드나무의 잎을 전탕하여 바르고 蟹黃을 칠한 1예, 부추즙으로 三白散을 바른 1예, 생버드나무 잎 혹은 연잎을 다린 물로 씻거나 백반물로 씻는 경우 1예, 미처 혈지 않은 곳에 홍반이 나타나고 가려운 사람에게 三味消毒飲으로 닦는 방법 1예, 박하, 버드나무 잎, 백반으로 씻는 경우 1예, 杉木을 다려 씻고, 蟹黃, 滑石가루를 白蠟에 개어 바른 경우 1예, 蟹黃만을 바른 경우 1예, 靑黛散을 바르거나 三黃散으로 닦은 경우 2예, 진물이 흐르면서 딱지가 생기는 경우에 靑黛膏나 시원한 크림을 바르는

경우 2예로 나타났다. 이로서 清熱解毒, 清熱解毒利濕, 清熱消風, 清熱利濕의 順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連翹消毒散, 化斑解毒湯, 三白散, 三味消毒飲, 靑黛散, 三黃散, 靑黛膏에 대해 조사해 보면 連翹消毒散은 《外科心法》卷七 涼膈散의 異名이다.³⁸⁾

涼膈散은 連翹1200g 大黃 芒硝 煨甘草 各600g 山梔子 薄荷 葉 黃芩 各300g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거칠게 빵아 1회 성인 12g에 죽엽3g과 약간의 꿀을 넣어 수전하여 식후에 온복하는데, 瀉火通便하고 清熱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上焦·中焦에 熱邪가 치성하여 발생하는 煩燥口渴, 面赤脣焦, 胸膈煩熱, 口舌生瘡, 咽痛, 便秘, 尿赤 등의 증상과 胃熱로 인하여 斑點이 생기거나 發狂 및 小兒急驚風, 頭瘡 등을 치료한다. 下熱한 사기를 제거하려면 上下陰陽의 出路를 모두 열어 주는 동시에 陰을 보존해야 하므로 축축하면서도 매끄러운 즉 清熱하는 동시에 潤滑瀉下하는 방제를 구성한 것이다.⁵⁵⁾

化斑解毒湯은 《外科正宗》권4의 方으로 玄蔘 知母 石膏 人中白 黃連 升麻, 連翹, 牛蒡子 各等分 甘草5分에 淡竹葉20片을 넣어 水煎하여 때에 구속됨이 없이 복용하여 三焦風熱이 上攻하여 火丹을 이룬 것을 치료하고, 全身痒痛한 사람에게도 사용하는데 근대에는 接觸性皮膚炎 치료에 사용한다.⁴⁵⁾

三白散은 膀胱氣로 열이 몰려서 陰囊이 붓고, 大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데 백축 40g 상백피 백출 목통 진피 각각 10g을 가루 내어 한번에 8g씩 생강이나 총백을 달인 물에 타 먹는다.⁴⁴⁾

三味消毒飲은 《太平惠民和劑局方》券10의 消毒散의 異名이다.⁵⁷⁾ 牛蒡子240g 荊芥穗40g 炙甘草80g을 거칠게 분말하여 매 4g씩 물로 다려서 식후에 복용하는데 小兒瘡疹이 이미 나타났는데 균등하게 透發되지 못하거나 혹은 毒氣가 壅遏되어 비록 투발되었으나 선명하지 못하고 壯熱狂燥하고 咽喉壅塞, 睡臥不安, 大便秘澀하며 上焦壅熱하여 咽喉腫痛, 胸膈不利하게 됨을 치료한다. 이외에 《瘍醫大全》券35方的 消毒飲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 또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내용은 金銀花 連翹 白蒺藜 荊芥 白芷 牛蒡子 防風 白鮮皮 赤芍藥 甘草로 구성되어 물로 달여 마시는데 遍身의 痒疥을 치료한다.

靑黛散은 《中醫外科學講義》上海中醫學院方으로 靑黛 黃柏 各80g 石膏 滑石 160g을 세말하여 환처에 뿌린다. 혹은 참기름에 개어서 붙이는데 收斂止痒하고 清熱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一般皮膚病과 焮腫痒痛出水를 치료한다.⁴⁶⁾

三黃散은 《備急千金要方》券10의 처방으로 大黃 黃連 黃芩 各160g을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 복용 시마다 10수저를 식전에 생수로 1일 3회 복용하는데, 清熱燥濕, 瀉火解毒의 효능이 있어 黃疸, 身體面目이 모두 누렇게 되는 증상을 치료한다.⁴⁵⁾

靑黛膏은 《中醫皮膚病學簡編》의 靑黛31g 蛤殼粉9g 石決明粉6g 水片1g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분말하여 기름에 개어서 外用하는데 下腿潰瘍을 치료한다.⁵⁶⁾

連翹消毒散은 瀉火通便, 清熱解毒하고, 化斑解毒湯은 上焦의 風熱을 치료하고, 三白散은 膀胱의 熱을 치료하고, 三味消毒飲은 毒氣가 壅遏되어 투발이 잘 되지 못한 壯熱狂躁를 치료하

고, 靑黛散은 收斂止痒하고 淸熱解毒하고, 三黃散은 淸熱燥濕, 瀉火解毒하고, 靑黛膏는 下腿潰瘍을 치료하여 淸熱解毒하는 역할을 이용하여 漆瘡의 피부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漆瘡의 症程에서 急性期에는 急性炎症 反應인 紅斑, 水疱, 水腫, 丘疹, 糜爛, 潰爛 등이 나타나며, 自覺적으로 癢痒感和 灼熱感이 나타난다. 濕熱型은 紅斑, 灼熱感, 癢痒感和 함께 水疱나 膿疱가 신체의 下部에 많이 발생하고, 風熱型은 紅斑, 灼熱感, 癢痒感이 신체의 上部에 많이 나타나지만 水疱나 膿疱가 형성되지 않는다. 熱毒型은 急性炎症의 症狀와 함께 口乾, 便秘, 全身症狀이 같이 나타난다. 慢性期는 血燥型으로 紅斑, 灼熱感, 水疱가 없지만 皮膚가 乾燥하고, 鱗屑이 생기며, 癢痒이 심해진다. 조²⁶⁾가 漆瘡의 치료에서 急性期에는 淸熱解毒, 祛風利濕, 涼血의 治法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症狀의 發現部位와 症狀의 表現에 따라 藥物을 加減해야 하고, 慢性期에는 淸熱祛風, 涼血潤燥의 治法이 위주가 된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乾漆의 주된 氣味는 辛溫하고, 주로 肝胃脾經에 歸經하며 주치증을 요약하면 活血通經, 消積殺蟲하며 乾漆을 고대의 본초서적에서 有毒으로 논한 내용은 약물 자체가 가지는 독성이라기 보다는 기미의 偏勝을 독성으로 본 견해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본다. 漆毒을 해독하는 데에는 芫, 芥子, 蜀椒, 자소, 紫菀, 수양버들, 漆姑草, 杉木, 油菜油, 鐵漿, 非菜, 白礬이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독법으로 제일 많이 활용된 해독방법은 淸熱解毒의 방법이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약물들은 苦寒한 기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乾漆의 편승된 辛溫의 기미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漆毒을 치료하는 52종의 약물 가운데 辛溫, 辛熱의 약성을 가진 약물로 非菜 이외에 4종, 辛涼의 약성을 가진 약물로 芫 이외에 5종으로 나타나 辛溫發散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온의 편승된 칠독을 신온한 기미로 피부주리를 열어서 해표시키므로서 기가 잘 순환되도록 하여 熱로 전회되지 않도록 하여 칠독을 완화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白礬은 해독 이외에 외상의 창구를 작게 하는 방법, 蕎麥秸은 모세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환처의 회복을 빠르게 하고, 白屈菜를 비롯해 뇌다말, 井中菴 등은 利尿, 桑葉은 祛風, 百部, 紫菀, 生薑은 귀경이 肺經으로 肺氣의 소통을 도모하며 解毒을 돕고, 滑石은 淸熱하고 利尿하는 기능, 秫米와 寒泉水는 大腸을 이롭게 하여 漆瘡의 회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漆瘡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淸熱解毒, 淸熱解毒利濕, 淸熱消風, 淸熱利濕의 방제 순으로 사용되어 淸熱하여 火熱毒邪를 解除하면서 濕과 風을 제거하는 처방을 사용하였다. 漆毒에 노출되면 다 漆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촉된 사람의 기질의 차이와 주리의 치밀함 여부, 肺의 氣機疏通의 원활함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최²⁷⁾는 옷은 소음이나 태양체질인 사람, 곧 혈액형이 AB형이나 B형인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으나 태음체질, 곧 혈액형이 A형인 사람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고, 소양체질 O형인 사람에게는 위험하다고 하여 체질과 혈액형의 차이에 의해서 칠독

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乾漆이 구성된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습이 많이 내성된 사람에게 더욱 피부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乾漆이 구성된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피부에 소양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음식을 담백하게 먹어 습을 조양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약물의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게하면 소양증이 소실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다.

乾漆의 毒性을 완화시킬 방법으로 사용된 약물의 解毒 방법은 偏勝된 氣味로 나타나는 毒性和 副作用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毒性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를 증대하는 것을 炮製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약물들은 炮製法에 해당하는 논의라기 보다는 乾漆을 복용하여 나타난 毒性이나 副作用을 어떻게 처치하여 그 弊害를 줄이느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독성과 부작용을 낮춰 안전하게 乾漆을 사용할 수 있는 포제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동의보감과 乾漆이 수록된 본초서적, 漆瘡을 언급한 본초자료, 漆瘡을 치료한 외과서적을 조사하여 乾漆의 氣味, 效能, 解毒 방법, 그리고 漆毒에 의한 전신증상을 어떻게 처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의보감 내에서 乾漆이 사용된 빈도는 積聚, 血, 蟲의 순이었고, 湯藥이나 가루약 보다는 주로 丸藥으로 사용되었으며, 용량은 丸藥처방에서는 君藥으로 사용되었고, 積聚를 치료할 때 다른 破積聚藥物과 配伍하여 乾漆의 약효에 치중하지 않았다. 乾漆의 氣味는 辛溫하고 肝胃脾經에 歸經하며 活血通經, 消積殺蟲하는 효능이 있고, 乾漆의 유독은 乾漆이 가지고 있는 자체 독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氣味의 偏勝이라는 관점에서 유독하다고 본 것이다. 乾漆항목의 본초서적에서 해독 방법으로 蟹, 鷄子, 蜀椒, 紫蘇, 紫菀, 수양버들, 漆姑草, 杉木, 鐵漿, 非菜가 다용빈도순으로 사용되었다. 漆毒을 푸는 방법으로 특이성이 있어 解毒하는 약물 이외에 肺氣의 소통을 잘 되게 하는 약물, 利尿시키거나 大腸 기능을 도와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 漆瘡의 瘡口를 작게 하는 약물, 消食하는 약물, 환부의 혈관기능을 개선하는 약물 등이 사용되었다. 漆毒은 감촉된 사람의 기질의 차이와 腠理의 치밀함 여부, 肺의 氣機疏通의 원활함 여부에 따라서 독성의 차이가 있다.

위 결과를 중심으로 乾漆의 독성과 부작용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를 증대할 炮製방법으로 蟹, 鷄子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陳學云, 李彬之, 徐樹楠. 神農本草經 中藥.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pp 461-462, 1987.
2. 陸昌洙 文永熙 李京涼. 한국본초학. 서울, 계축문화사. p 118,

- 1984.
3. 신재용: 신재용의 그림으로 보는 신동의보감. 서울, 학원사. pp 122-124, 2000.
 4.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pp 348-349, 355, 397, 508, 651, 773, 814, 1358, 1505, 1545, 1806, 1871, 1948, 1969-1970, 1979, 1998, 2001, 1999.
 5. 李時珍. 圖錄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pp 1139-1141, 1983.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향약집성방 5권. 서울, 일월서각. p 113, 1993.
 7. 錢遠銘. 本草綱目精要. 廣東, 廣東科技出版社. pp 372-373, 1990.
 8.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본초학회. 서울, 본초각론. pp 710-712, 1997
 9. 金在佺. 臨床應用 韓藥炮製學. 서울, 藥業新聞社. pp 101-103, 1992.
 10. 辛民敎. 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사, pp 460-461, 1991.
 11. 김재익. 臨床本草講座 下卷. 서울, 대성의학사. p 642, 2000.
 12. 上海中醫學院. 中草藥學. 上海, 商務印書館. p 396, 1983.
 13. 嚴永清外. 中藥辭海 第一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 211-212, 1993.
 14. 翁維良. 活血化瘀治療疑難病. 北京, 學苑出版社. p 69-70, 1993.
 15. 劉慶華, 劉彥辰. 實用植物本草.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p 403-404, 1998.
 16. 南京藥學院編. 藥材學. 香港, 勸華文化服務社. pp 1160-1161, 1999.
 17. 中國藥物大全編輯委員會委. 中國藥物大全(中藥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2, 1998.
 18. 徐樹楠. 中藥臨床應用大全.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p 30, 354-355, 398, 449-450, 1999.
 19. 李相漸. 현대 한방약물학. 서울, 행림서원. p 303, 1974.
 20. 顏正華. 중약학.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p 579-581, 1991.
 21. 陳實功. 外科正宗. 북경, 華夏出版社. pp 484-485, 1997.
 22. 祁撰. 外科大成. 북경, 華夏出版社. p 627, 1997.
 23. 許克昌. 外科證治全書. 북경, 華夏出版社. p 983, 1997.
 24. 김태희, 이경민, 권기록, 최성모. 옷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 약침학회지 5(1):159-170, 2002.
 25. 송미선, 김윤상, 임은미. 靛靛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 부인과학회지 15(1):63-65, 2000.
 26. 조정연, 원진희, 강태희, 이건업, 송봉길, 이상관. 옷에 의한 전신성접촉성피 부염 1예에 대한 병증보고. 한방성인병학회지 6(1):4-5, 2000.
 27. 최진규.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 한문화, 2, 148-156, 2001.
 28. 유태종. 다시 쓰는 음식 궁합. 아카데미북. pp 214-215, 1998.
 29. 김광중, 권오규. 닭의 효능이 가지는 한의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학회지 12(2):1-13, 1997.
 30. 陳嘉謨. 本草蒙筌. 本草名著集成 張瑞賢主編. 북경, 華夏出版社. p 157, 1998.
 31. 張璐. 本經逢源. 本草名著集成 張瑞賢主編. 북경, 華夏出版社. p 436, 1998.
 32. 黃宮綉. 本草求真. 本草名著集成 張瑞賢主編. 북경, 華夏出版社. p 966, 1998.
 33. 楊倉良. 毒藥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4, 6, 634-639, 1993.
 34. 나창수 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pp 721-722, 793, 797, 803, 2001.
 35. 李尙仁 外. 漢藥臨床應用. 서울, 成輔社. p 43, 48-49, 82-83, 1982.
 36. 彭澤邦, 李燕. 中醫辭海 下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 74, 453, 617, 1995.
 37. 馬立森 外. 新編醫藥治百病.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7, 8, 1992.
 38. 彭懷仁. 中醫處方大辭典 第5冊. 서울, 영신문화사. p 92, 430, 1999.
 39. 金明東. 肺의 氣機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5(2):174-195, 2001.
 40.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중약대사전. 서울, 정담. pp 297, 463-465, 513, 614, 616, 857, 1179-1181, 1631, 1921, 2124, 2127, 2515-2516, 2996, 4337-4338, 4376, 4812, 1998.
 41. 신길구. 신씨본초학. 서울, 수문사. pp 169-170, 242-243, 465-470, 1992.
 42. 안덕균. 한국본초도감. 서울, 교학사. p 54, 477, 588, 773, 2001.
 43.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p.121, 263, 335, 2001.
 44. 李劉坤. 臨床溫病學講義. 서울, 大成醫學社. pp 179-180, 2001.
 45. 彭澤邦, 李燕. 中醫辭海 上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 125, 145, 604, 867, 1995.
 46. 彭澤邦, 李燕. 中醫辭海 中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 371, 380, 661, 1995.
 47. 이수진 외 2. 栗에 대한 韓醫學의 文獻考察.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4권 1호, p 122, 130, 2000.
 48. 辛民敎. 原色本草維新. 서울, 慶苑文化社. p 61, 118, 1979.
 49. 유도곤. 생리학강의. 익산, 원광대학교출판부. pp 302, 323-324, 1998.
 50. 南益鉉. 醫林 73호. 서울, 행림사. p 31, 1969.
 51.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華夏出版社. p 721, 1997.
 52. 許克昌. 外科證治全書. 北京, 華夏出版社. p 983, 1997
 53. 申拱辰. 外科啓玄. 北京, 華夏出版社. p 327, 1997.
 54. 汪機. 外科理例. 北京, 華夏出版社. p 232, 1997.
 55. 전통의학연구소. 표준임상방제학. 서울, 성보사. pp 81-82, 1995.
 56. 彭懷仁. 中醫處方大辭典 第6冊. 서울, 영신문화사. p 55, 1999.
 57. 彭懷仁. 中醫處方大辭典 第1冊. 서울, 영신문화사. p 617, 1999.